

우리는 외부로 눈을 돌렸습니다. 마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5년 디지털 서비스 이용확산 지원사업’ 공고가 떴습니다. 경쟁률은 3대 1. 전국의 공공기관들이 저마다의 IT 기술을 뽐내는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절박했습니다. 강남구의 복잡한 인허가 현황과 비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적나라하게 분석하고, 이를 클라우드(SaaS) 기반의 시스템으로 혁신하겠다는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강남구는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국비 8,316만 원 전액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구 예산은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수억 원 가치의 시스템을 만들 기회를 얻어낸 것입니다.

제2막: 지도가 된 세금, 디지털 트윈

2025년 9월, 드디어 <The Smart한 등록면허세 시스템>의 베타 버전이 열렸습니다. 모니터를 켜 직원들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시각화’였습니다. 기존에는 텍스트와 숫자로만 존재하던 과세 자료들이, 강남구 지도 위에 점과 색깔로 표시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 트윈’ 기반의 세무 행정입니다. “여기 빨간색 점들은 폐업 신고 된 곳이고, 파란색은 이번 달 신규 허가 난 곳입니다. 지도만 봐도 상권의 변동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시스템의 핵심 엔진은 ‘자동 동기화’였습니다. 식당 주인이 구청 위생과에 폐업 신고를 하면, 그 정보가 API를 타고 실시간으로 세무 부서 시스템에 반영됩니다. 담당자가 공문을 기다릴 필요도, 엑셀을 대조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업무 대시보드(To-Do List)’ 기능은 업무의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신규 허가: 400건 / 수정: 345건 / 처리 필요: 1,090건] 시스템에 접속하면 오늘 처리해야 할 업무량이 직관적으로 표시됩니다. 담당자는 그저 ‘승인’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복잡한 과세 자료 정비를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데이터를 받아온 결과, 데이터 수집 효율은 이전 대비 10.92배나 향상되었습니다.

제3막: 칸막이를 없애다

이 시스템의 진가는 ‘협업’에서 발휘되었습니다. 그동안 세무 부서는 국세청의 폐업 정보를 가지고 있었지만, 인허가 부서는 이를 알기 어려웠습니다. 반대로 인허가 부서의 변동 사항이 세무 부서로 늦게 넘어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이 ‘정보의 시차’를 없애버렸습니다. 세무 부서가 확인한 국세청 폐업 정보를 시스템에 올리면, 위생과나 문화도시과 등 인허가 부서 담당자가 즉시 다운로드하여 자신들의 대장을 정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덕분에 일일이 현장에 나가보지 않고도 유령 사업장을 정리할 수